

 로컬이 뜬다 - 2

1 개의 메일

선수단 뉴스레터 <woohyunkim+news@dancingcider.com>

2021년 6월 23일 오전 10:00

받는사람: Company <company@dancingcider.com>

선수단 뉴스레터 #39

2021년 6월 23일

로컬이 뜬다 - 2

선수단, 안녕하세요! 😊

충주는 간밤에 우박을 동반한 비바람이 불었어요. 덕분에 더위는 좀 사그라들었지만, 전국 곳곳에 **농작물 피해 소식**도 들려오네요. 이번 주에도 간헐적으로 비가 쏟아질 수 있다고 하니 우산 잘 챙기세요. ☔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주류업계와 로컬'을 주제로 다뤄보고자 해요. 지난 호 뉴스레터에서 '로컬'이 하나의 큰 흐름이 되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는 국내 주류업계에도 해당이 돼요. 최근 카브루는 양조장이 소재해있는 가평에 지역 한정 맥주인 '구미호 갯평'을 선보이기도 했으며, 이천에 양조장을 보유한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역시 "**이천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언급하기도 했죠. 🍷 그렇다면 주류업계의 대표적인 로컬크리에이터는 어디가 있는지, 지자체와 주류업계의 협업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럼 오늘도 Happy Hump Day! 🐪

주류업계의 로컬크리에이터

지난 뉴스레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신설한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에 대해 언급했었는데, 국내의 양조장들도 다수 선정이 되며 눈길을 끌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작년 로컬푸드 분야의 최우수 팀으로 뽑힌 "크라머리 브루어리"가 있죠. "크라머리 브루어리"는 가평의 특성을 컨셉으로 한 지역맥주 '가평물안개'를 제조, 판매하고 가평 특산물인 잣을 이용한 맥주를 개발하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어요. 또 올해에 로컬 크리에이터로 신규 선정된 "통영맥주"의 경우 통영항 골목길의 폐업한 목욕탕을 리모델링한 지역맥주 양조장을 운영하며 통영지역을 대표하는 맥주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고 해요. 그 외에도 제주의 "제주맥주", 청주의 "홀리데이", 의성의 "호피홀리데이" 등 역시 지역성을 살린 맥주를 아이템으로 하여 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이 되었어요. 특히 제

주맥주는 올해 코스닥에 입성하며 로컬크리에이터로서 첫 IPO 사례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죠. 그 외에도 울산에 위치한 "복순도가"의 김민규 대표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한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 울산에 '365 발효마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천의 개항로 상인 연합체인 '개항로 프로젝트'에서는 '개항로'라는 로컬맥주를 출시하며 성공적인 지역맥주 프로젝트라는 평을 받고 있기도 해요.



- [\[로컬에서다시찾은가치\]\(포토\) 올해의 로컬크리에이터 "크래머리 브루어리"](#) (비로컬, 2020-12-19)
- [지역에서 날개 펼치는 청년 창업가들](#) (KBS, 2021-06-18)
- ['낮과 밤'이 다른 수제 맥주 공방, 술만 만들지 않아요](#) (오마이뉴스, 2021-06-20)
- [울산 '365 발효마을',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선정](#) (한국일보, 2021-04-18)
- [\[INTERVIEW\] 과거 인천의 중심지였던 '개항로'를 '힙항로'로, '개항로프로젝트'](#) (YCK mag, 2020-12-26)

술과 지자체의 협업관계

근래에 지자체 차원에서 술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역의 술은 로컬 원물을 주로 소비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술 및 양조를 활용한 제품과 프로그램 등 문화콘텐츠를 파생하여 지역 내 소비 증진과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죠. 최근 울산시 중구는 원도심 '젊음의 거리' 내 호프 거리 부활을 위해 수제 맥주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라 밝힌 바 있으며 대구시의회에서는 대구의 '치맥축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수제맥주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되었다 해요. 더 나아가 지자체에서 기술이나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특산주의 육성에 힘을 쓰기도 해요. 가령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은 '한국의 보르도'라고 불리는 포도·와인의 산지인 충북 영동에 전국 최초의 [와인연구소](#)를 설립했어요. 와인연구소는 지역에 특화된 와인 및 와인을 활용한 가공 제품의 개발을 돕고 양조용 포도 품종을 무상 분양하는 등 국내 와인러리 농가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반면 인천에서는 지난 3월 지역 전통주 산업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추진하였는데요, 지역 전통주 육성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이라 하네요.



- 울산 원도심 호프 거리 '대표 맥주' 만든다 (연합뉴스, 2021-04-02)
- "대구 수제맥주 산업 육성해 치맥축제 명물로" (매일신문, 2021-04-14)
- 충북농기원, 와인연구개발 특허기술 14개 업체에 이전 (중부매일, 2021-04-29)
- [조례돋보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인천일보, 2021-03-17)
- 가양주 복원...춘천시 '전통주' 산업 육성 나선다 (연합뉴스, 2021-04-27)

금주의 업계 소식



- 서울장수, 전국 골프장에 '막걸리 슬러시' 판매 (아시아경제, 2021-06-18)
- (주)MK글로벌리아, 세계가 인정한 '주강맥주' 출시 (한국경제, 2021-06-17)
- 메가박스, 제주맥주와 손잡고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문화일보, 2021-06-16)
- "제2의 곰표는 나야" 편의점 수제맥주 전쟁 2R (서울경제, 2021-06-15)
- 조리풍맛 막걸리 나왔다...'국순당 쌀 조리풍당' 출시 (파이낸셜뉴스, 2021-06-21)
- 업계 1위 '카스' 오비맥주 '희망퇴직' 실시...테라 때문에? (서울신문, 2021-06-15)
- KMAC,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맥주부문 1위 지표 제시 (머니투데이, 2021-06-16)

👉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나요?